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3월 18일 (제942호)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정원 단풍나무 앙상한 가지에

한 쌍의 귀한 손님 까치가 찾아와 노크하니

당신이 그리워 창문열고 내다보니

앞산 칠부 능선 흰 눈꽃 햇살에 눈부시고

앞뜰 잡초도 파르팍 진주 이슬 목에 걸고 웃음 짓누나

실개천 물소리 새소리 속 아지랑이 향연 속에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교향곡 연주에

기도원 공사판 망치소리 금관악기 타악기 하모니 소리도

아름다운 작품에 시간가는 줄 모르며 함께 웃고

멋진 가족 비단잉어 모셔온다 법석 떠누나

심술궂게 불어대던 칼바람도 온화한 봄바람에

산등성 흰 눈꽃 머잖아 흰 날개 접고 푸른 날개 퍼갠구나

엄동설한도 다가오는 봄을 못 막듯이

머잖아 남북의 푸른 산야 손잡고 춤을 추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리라

아~그리워라 그날!

2018. 3. 8

기도원에서 朋友

변화

붕 우 컬 럼

경계인(境界人)

경계인이란 말이 있다. 경계에 서서 필요할 때마다 이쪽저쪽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우(右)도 아니고 좌(左)도 아닌 사람을 일컫는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한 남자가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상에 살고 있었다. 그는 남군이 지나가면 남군을 응원했고, 북군이 지나가면 북군을 지지했다. 그래서 그는

옷도 바지는 남부 연합군의 군복인 회색을 입었고, 윗도리는 북부 연합군의 푸른색을 입고 다녔다. 얼마 후, 이 지역에서 양군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 그 남자는 자신의 옷 덕분에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전쟁터를 어슬렁거렸다. 그런데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남군은 그의 윗도리 색깔을 향하여 총을 쏘았고, 북군은 그의 회색 바지를 향하여 총을 쏘았던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경계인은 중용(中庸)의 의미가 아니다. 중용이란 ‘가급적 극단적인 것을 피해 무리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라’는 지

해가 담긴 삶의 철학이지만, 경계인은 기회주의자로 봐도 무방하다.

한 쪽 발은 세상에, 한 쪽 발은 교회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6)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신앙은 중용도, 중도도 없다. 모 아니면 도이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한다.

아합 왕 시절, 이세벨을 통해 들어온 온갖 우상이 판을 칠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

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했다. 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 올라가 구경을 하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바알신 편에 선 것도 아니고 두 가운데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이를 보고 엘리야가 호통을 쳤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왕상18:21).

신앙에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중간첩의 최후가 좋지 않듯 그런 자의 결국은 지옥이다. 다니엘처럼, 아벳느고와 사드락, 메삭처럼 확실한 신앙인이 되자.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26:1~6)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요즘 한반도 정세를 보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월 전 쟁설이 나돌았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거라는 등, 암울하고 불안한 이야기가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해서 북한의 전격적인 참가결정, 남북선수단 동시입장 및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그리고 연이은 북한 고위급인사의 방문 등으로 이어지더니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4월과 5월에 줄지어 개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이 UN이 결의한 대북경제제재로 인해 궁지에 몰리자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작전이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까? 다 외관상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을 이루자며 9차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진행했고, 예배 때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고 애국가를 불러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9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어느 덧 썩이 나더니 가지에 잎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평화통일 기도성회 그만하세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 말씀대로 그동안 아무런 변화나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일로였지요.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 여섯째 날이 되어도 예리고 성에는 금조차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자 그 때야 예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섯 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몸에서는 진물이 흘렀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일곱 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리고 성을 여섯 바퀴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낙담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요단강에 여섯 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진물 나는 몸 그대로니까 '기도해도 안 돼.'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 절인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에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씀을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1:6~7). 기도는 하면서도 '이게 될까?'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앞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날씨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집회 전날부터 비가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집회 당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누구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고,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을 쓰지 않고 집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일 찬란한 태양이 비추어 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 비로 인해 미세먼저조차 없는 맑은 하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에 이렇게 좋은 날이 온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평화통일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제정세나 북한의 자멸에 의한 외형적인 요건으로 인해 평화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패역하자 하나님

이 그들을 멸하시고, 이방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

나

님은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회개시키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예정

가운데 두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렘36:37).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렘36:38)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평화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성회 때마다 언급했듯이, 우리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성회를 계속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모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것은 모세지만, 출애굽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율부짚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평화통일을 앞당길 것입니다. 분명히 그 날이 꿈꾸듯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시126:1~3).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리고를 일곱 바퀴 돌아야 무너집니다. 일곱 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야 문둥병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음은 아직 기도의 독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차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엡3:20)시기 때문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마시라. 의심하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얼굴에 부딪히니까 의심이 생겨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 두려워졌고, 바로 물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기도한다고 집이 팔리겠어?", "기도해도 남편이 여전히 속 썩이네.", "기도한다고 다 되면 안 되는 일 하나도 없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실상은 기도한 대로 나타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난 아들로 인해 만민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100세 가까워 오는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고, 그래서 하갈의 몸을 취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꼴 나지 맙시다. 기도는 응답 받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언제 매도할 것인가

깎때기 위에 떨어진 미꾸라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적시에 올바른 이유로 주식을 파는 것은 성장 잠재력이 큰 주식을 사는 것만큼이나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명한 매도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적절한 매도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분석에 실수를 했다면, 그리고 주식 매수이유가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면 매도하여 손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보다 실행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매입한 주가에 고착되는 경향이 있고, 돈을 잃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견고한 기업들이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에 두 번째로 기업의 기반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악화되었다면 매도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이것은 가장 흔한 매도 사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경제학자 케인스가 말했듯이 “사실이 바뀌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항상 자신의 돈을 투자할 최고의 투자처를 찾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약간 저평가된 주식을 매도하여 엄청나게 값싼 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이는 현명한 전략인 셈이지요. 자본이 제한된 투자자로서 저평가된 주식을 팔아 보다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또한 논리적이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기존 주식을 팔아서라도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반면 현재 매력적인 가격의 매입대상이

없어도, 지나치게 고평가된 주식이 있다면 이를 매도하여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주식가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지금 당장 다른 투자처가 없더라도 그 주식을 파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지요. 현금이 주는 수익률은 영zero이지만 마이너스 수익률보다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이 주식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주식을 파는 가장 좋은 이유입니다.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시장가치가 상승해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위험도를 낮추고 자 그 주식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주식의 과거 성과보다는 기업의 미래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돈이란 지혜와 정보를 따라 움직이는데, 정보는 우리 삶의 최대 자산이자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정보는 바로 배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지요(욥 8:5~8). 따라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 투자의 대가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들을 배우는 것도 동일한 이치이지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에 열조들에게서 배우는 지식이 더해질 때 우리의 삶도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소싯적 시장 통을 지나다보면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큰 대야에 미꾸라지를 담아놓고 비닐봉지에 넣어 팔던 풍경이 생각난다. 비닐봉지에 깎때기 주둥이를 넣고 바가지로 미꾸라지를 퍼서 부으면 꼼짝없이 비닐봉지로 떨어진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깎때기 위에 부어지면 웅뽀는 재주를 피우고 몸부림쳐봐야 소용없다. 들어가는 길 밖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깎때기 위에 부어진 미꾸라지 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목사님께서 약 25년 전 권면하신 목자의 길을 소명 없음을 핑계하여 따르지 못했다. 주님 앞에 나는 미꾸라지였다. 미끈둥미끈둥 잡히지 않는 미꾸라지처럼 20년을 종교적인 방황과 철학적 탐구로 더욱 교회와는 멀어져 갔다. 그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된 이후로 회사에 온갖 예측하지 못한 희한한 사건 사고로 고통 받게 되었다. 3년간 회사가 기울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지금 예야 고백하자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

하면서 환난이 시작되었고, 그 신앙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20년 만에 다시 뵈게 된 이초석 목사님께서 “너, 신학교 가라.” 하셨다. 신기하게도 그 날 이후로 회사가 급격히 무너져 신학교 기숙사로 갈 수밖에 없게 상황이 흘러갔다. 깎때기 위에 떨어진 것이다. 그 후 신학교 입학하여 7년 째. 지금 종로교구의 전도사로 시무하게 되기까지 오직 한 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어림짐작 너의 시간은 지나고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만 남아있다.”

택정된 자의 길 앞에 무슨 근심 있으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깎때기 안으로 순종하며 들어가리라.

‘주님. 당신의 배려하심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길, 주님의 도, 깎때기처럼 좁고 힘든 길이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발자취 따라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광주 전도사



:: 연단을 넘어 ::

해보야 안다, 해보면 다르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아지신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내가 더욱 건강해졌고, 내 주변사람들의 건강도 돌아보고 돕는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나부터가 어려서 잘 먹지 못하고 자라 약골체질이 나의 천성이겠거니 하며 20대 중반까지 골골한 몸으로 살아왔다. 그러다가 단백질 소모증인 폐결핵에 걸려 180cm에 59kg까지 살이 빠지면서 이대로 가다간 뻘뻘 남겠다 싶어 시작한 게 헬스였다. 이후 매일 성실히 1시간 반 헬스에 시간을 투자하여 메마른 몸에 근육을 붙여 70kg 중반까지 몸을 만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피로감과 피곤은 사라지지 않았다. 피검사를 받아보니 염증지수가 자그마치 200이 넘었다. 정상은 20이라며 의사도 놀랐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의 일로 건강에 대한 전문서적과 영양학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어보며 다른 곳에 원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먹는 것이었다.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 이것만큼 명확한

진리가 없다. 각 음식과 영양소가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내 몸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펴보니 답은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 내가 가장 싫어하는 채소였다. 별명이 육식동물이고,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온 나인데 야채라니... 그러나 변화되길 원하면 새로워져야 한다. 처음엔 채소의 양을 60g으로 시작하여 차차 180g까지 늘렸다. 좋아하던 고기 식단은 적은 양으로 제한하고 야식도 끊었다. 영양제도 11알이나 되는 양을 매일매일 챙겨먹었다. 그러자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평생 아침이면 불편한 배를 붙잡고 화장실로 가야만 했고, 입 주변엔 내장기관과 내분비계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여드름이 가득했고 피로감을 달고 살았던 내가 아침이 편안하고 피부도 깨끗하고 몸이 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몸이 더 좋아지니 하나님 일하는 게 더 즐거워졌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이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 순종하는 맘으로 힘들게 하던 일을 이젠 즐겁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체력이 영력이

요 하나님을 위한 건강이라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이 좋은 것을 가만히 나만 누릴 수 있리라. 2월 초 ‘영·혼·육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지자’는 기치아래 가졌던 교육부서 동계수련회에서는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영적도전과 함께 2박 3일 5끼 식단을 건강식으로 바꿨다. 수련회 중간 ‘거룩한 성전 재건 프로젝트’라는 건강강의도 넣어 몸과 건강과 영양에 대한 지식을 제공했다. 그렇다 해도 5끼 내내 샐러드를 한가득 먹는 식단이라니..., 자의든 타의든 모두가 뜻을 정한 다니엘 같았다. 그런데 마지막 날 수련회를 마치기 전부터 간증이 터져 나왔다. “전도사님, 머리의 기름이 사라졌어요. 몸이 가벼워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 아이들의 식단을 바꾸고 너도 나도 샐러드를 사서 스스로 자원하여 사먹게 되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해보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의 잣대로 거부하고 반대하

다가도 순종함으로 해보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겠고, 해보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니 선하신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얇은 삶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잘 모를지라도 순종하면 또한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변화시킨다.

2018년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는 삶의 본질을 굳건히 세우는 최고의 표어를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 듣고 ‘아, 좋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아야 하는 복된 한 해로,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올 한해는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도전하고 바꾸고 변화시켜 이전 그 어떤 순간보다도 풍성한,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선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믿음의 발을 한걸음 더 내딛어 보자.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날부터 바로 우리 최고의 날이 시작된다.

이은총
unjena7@hanmail.net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잠 28:25)는 잠언의 말씀이 있다. 요즘 이 말씀을 체감하며 살고 있다. 우연한 계기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있었다. 방학 영어캠프와 국제학교 유학사업이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진행해보겠다 마음먹었는데, 생각보다 일의 진행이 순조로워서 3개월에 한 명 꼴로 유학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다.

그런데 현지에 계신 한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 보였다. 처음, 의기투합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며 기뻐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그 선생님의 욕심으로 이곳저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다른 말을 하며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관

광차 들른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사업차 온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학부 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사람을 담당 선생님이라고 안내하는 등, 매 순간 하는 말들이 모두 거짓투성이였다. 그 선생님이 그러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다. 주고받는 돈들이 모두 자기를 지나가게 해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허황된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분수를 넘는 그 선생님의 욕심은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더 큰 욕심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돈에 눈이 멀어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머지않아 나를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떠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생님은 그럴듯한 말로 둘러대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많은 생각이 든다. 현재를 살면서 이 땅에서 돈은 꼭 필요한 도구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갈수록 돈이 하나의 가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쫄대가 되고 있다.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돈

이 쫄대가 되는 순간,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이 짝 켜 손바닥의 모래알처럼 모두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 모두 다 그를 떠나고 만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다. 돈에 눈이 멀어 끌어 모으기만 하는 모습은 사해바다와 다를 것이 없다. 그곳에는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거할 곳도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한다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맘으로 돈을 사랑할지라도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크리스천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해본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상처 입은 새가 눈 덮인 산 속에서 스스로 치료할 수 없고 먹이를 구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력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 받고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새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수의사가 추운 겨울날 차를 몰고 눈 쌓인 산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배고파 지친 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두면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만 같아서 그는 새를 살리려고 차를 세웠습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수의사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가갈수록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수의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쌍한 새를 살리고 싶었으나 그 새는 도움을 뿌리치고 멀리 날아가 숲속 어디선가 외롭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우매한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멀리 달아나려고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JC 아카데미 개강



지난 13일,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봄, 드디어 2018 JC 아카데미가 방학을 마치고 개강하였다. 이 아카데미의 강사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지난 학기에 이어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셨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모세오경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사서이며, 교리와 신학 위주인 다른 서신서와 달리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와 함께 역사가 담겨있다고 말

씀하셨다. 사도행전 10장 전반부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 등이 담겨있었다. 이에 베드로는 이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멀리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신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던 고정관념과 형식을 깨뜨리는 사건으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암시하는 환상이었다. 이후 베드로는 이방인 최초의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된다.

이 말씀과 함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닫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할 권리가 없으며 겉치레는 금방

없어지나 속사람의 경건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셨다.

또한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2~15절 말씀을 통해 겉사람과 속사람, 알곡과 컄짚이는 공력테스트 후 판가름 난다고 설명하시며, 우리가 하는 교회의 많은 봉사와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충만한 속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동반하며, 유대인뿐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한 베드로의 결심처럼 주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하셨다.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속이 짝 찬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 되자.

JC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8시 반, 구반포 엘루체 컨벤션 홀에서 열린다.

기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교단소식 ::

바쁘시죠?

‘급하고 바쁜 서두름이 악마를 발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분주하며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급한 내 마음의 욕심이 분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언젠가 지교회로 섬기는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목사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레지도 않는 겸손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관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하여 선 결체 후 줄서서 제품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생산시설을 확장치 않는 이유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새벽기도회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공예배의 안내위원과 차량봉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현재보다 더 바빠지게 되면 기도시간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을 세상일에 빼앗길 것 같아 사업을 확장치 않기로 원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한 원칙’,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저의 삶과 사역에 있어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기도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 일을 자꾸 더 만들어 조금만 더, 이번만 더, 그렇게 시간에 쫓기다 허겁지겁 다른 곳에 체력을 다 허비해버려 기도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길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바쁘니까? 신앙생활도 해야 하고, 직장생활, 취미생활, 가정살림, 손자손녀도 봐줘야하고, 친구도 만나야하고... 바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후딱 가버립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돌아보면 오히려 바쁘고 조금하게 처리했던 일들로 인해 더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세상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우선순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마6:33)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춘계산상집회

4월 2(월)~5일(목)
문의: 02-533-9191

호텔예약: 3월 27일(화) 10시정각
홈페이지(www.jcc.tv)